

광주FC, 코리아컵 잇고 K리그에 집중

울산과 코리아컵 4강 2차전 2-2 무승부...합계 2-3으로 결승행 좌절 9월 1일 대전하나시티즌과 29라운드 맞대결...본격 순위 싸움 나서

광주FC의 코리아컵 우승 도전이 무산됐다. 광주는 파이널A를 목표로 다시 스파이크콘을 조여맨다.

광주FC가 지난 28일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코리아컵 4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홈에서 열린 1차전 승부에서 0-1로 졌던 광주는 합계 스코어 2-3이 되면서 결승 티켓을 울산에 내줬다.

장단 후 대회 첫 4강을 이뤘던 광주는 '결승'은 다음 목표로 남겨두게 됐다.

광주가 전반 13분 코너킥 상황에서 임종은에게 내준 골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0-1로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문민서를 대신해 오후성이 투입된 광주 이정호 감독의 교체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시작 2분 만에 오후성이 왼쪽에서 공을 몰고 문전으로 이동한 뒤 오른발로 슈팅을 날렸다. 오후성의 발을 떠난 공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하지만 1-1의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반 9분 마테우스가 주먹구구 넘긴 공을 오른발로 찍어 차면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결승행 티켓을 위해서 '2점 차 이상 승리'가 필요했던 광주, 오후성이 후반 44분 다시 움직였다.

중원에서 공을 낚은 오후성이 그대로 문전까지 달려들어서 원두재를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이번에도 공은 조현우를 지나 울산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이번에는 가브리엘이 울산을 위협했다.

가브리엘의 헤드가 바운드 된 뒤 그대로 울산 골대로 향하는 것 같았다. 가브리엘이 득점을 예감하는 듯 양팔을 펼쳤지만 조현우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손을 뻗어 공을 쳐 냈다.

그리고 이상기의 원발 중거리 슈팅도 골대를 벗어나면서 광주는 코리아컵 우승 도전을 멈추게 됐다.

광주를 상대로 결승행을 확정된 울산은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우승컵을 놓고 대결한다.

포항은 제주유나이티드와의 1차전 2-2 무승부 뒤 28일 안방에서 진행된 2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코리아컵 결승전은 오는 11월 30일 치러진다.

K리그1 28라운드 일정까지 울산과 3연전을 벌였던 광주는 1부 2패를 기록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코리아컵 결승과 파이널A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광주의 계획이 틀어졌지만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울산 3연전 아쉬움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위해 나선다.

광주는 9월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으로 가 대전하나시티즌과 29라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올 시즌 두 팀은 나란히 2-1 승리를 주고받으면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오후성이 지난 28일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의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후반 2분 동점골을 넣고 있다.

<광주FC 제공>

손흥민·이강인, 흥명보호 합류 전 연속골 노린다

손흥민(토트넘·사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유럽 무대를 누비는 태극전사들이 흥명보호 첫 초전 전 마지막 소속팀 경기에서 득점포를 노린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핫스피는 내달 1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4-20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캡틴'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시즌 3호 골과 함께 두 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에버턴과의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4-0 승리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뉴캐슬전 통산 16경기에서 5골 4도움을 기록했는데, 손흥민이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모든 경기에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꺾었다. 손흥민의 득점포가 곧 토트넘의 승리 공식인 셈이다.

지난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EPL 통산 122골을 기록 중이다.

1골을 더 추가한다면 EPL 통산 득점 랭킹 공동 19위인 라힘 스티어링(첼시), 드와이트 요크(은퇴·이상 123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는 이강인은 세 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PSG는 2일 오전 3시 45분 밀과 2024-2025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강인은 1라운드 브라보르전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해 리그 전체 개막 1호 골의 주인공이 되더니, 2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는 후반 37분 PSG의 6-0 대승에 방점을 찍는 쐐기 골까지 터뜨렸다.

킬리안 음바레(레알 마드리드)가 떠난 여파로



주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PSG에서 이강인은 교체로 출전했음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냈다. 득점 감각이 물오른 이강인은 내친김에 3호 골과 함께 득점 선두까지 노린다.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서 뛰는 황희찬은 31일 오후 11시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마수절이포에 도전한다.

황희찬은 1라운드 아스널전, 2라운드 첼시전에 모두 선발 출전했으나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 공격포인트도 생생하지 못했다.

핵심 공격수 황희찬의 침묵에 팀은 개막 2연패를 당했다. 지난 시즌 12골을 터뜨려 EPL 전체 득점 랭킹 15위, 팀 내 1위에 올랐던 황희찬의 득점포가 절실하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의 소속팀 마인츠는 31일 슈투트가르트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우니온 베를린으로 1년 임대 이적을 떠난 정우영은 31일 FC장크트파울리와 홈 경기에서 새 소속팀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여자 U-20 축구팀, 월드컵 16강 진출 도전

9월 2일 나이지리아·5일 베네수엘라·8일 독일과 대결

202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이 다음 달 1일 콜롬비아에서 막을 올린다.

보고타를 비롯해 콜롬비아 3개 도시 4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02년 시작된 U-20 여자 월드컵의 11번째 대회다.

2002년과 2004년 대회 땀 12개국에 본선에 출전한 뒤 2006년부터 직전 2022년 대회까지 16개국 체제로 진행되던 U-20 여자 월드컵은 이번 대회에선 출전국이 24개국으로 늘어났다.

24개국 4개 팀씩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그리고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툰다.

올해 3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에서 4위에 오르며 이번 대회 본선 출전권을 따낸 한국은 35세의 젊은 사령탑 박윤정 감독의 지휘 속에 세계 무대 도전에 나선다.

역대 FIFA 대회에 참가한 한국 감독 중 최연소인 박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당면과제는 '조별리그 통과'다.

한국은 독일에서 열린 2010년 대회에서 지소연(시애틀 레인), 전은하(수원FC 위민), 이민아-김혜리(이상 현대제철)를 앞세워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남긴 바 있다.

이후 한국은 2012년 일본, 2014년 캐나다 대회에서 연속 8강에 진출했으나 2016년 파푸아뉴기니 대회에선 조별리그 탈락했고, 2018년 프랑스 대회 때는 본선에 오르지 못해 내림세를 보였다.

2020년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뒤 2022년 코스타리카 대회에선 본선에 복귀했으나

다시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토너먼트 진출의 문이 넓어졌지만 조별리그에서 만날 팀들의 전력은 만만치 않다.

한국은 D조에서 2일 나이지리아와 1차전을 치르며, 5일 베네수엘라, 8일 독일과 대결을 벌인다.

독일은 미국과 더불어 U-20 여자 월드컵 역대 최다 3회 우승을 차지한 팀이고, 나이지리아는 2010년과 2014년 준우승 경험이 있다. 사상 두 번째로 U-20 여자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베네수엘라와의 대결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팀 명단엔 주장이자 공격의 핵심인 전유경, A매치에도 이미 데뷔한 미드필더 배예빈(이상 위덕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파로는 미국 예일대에 다니는 수비수 장서윤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고교생 3인방 중 한 명인 조혜영(공격수)과 '졸업생' 최한빈(미드필더·고려대), 정다빈(공격수·고려대), 조어진(골키퍼·울산과학대) 등 광양여고 출신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외에 2018년 대회 우승국인 일본과 2016년 챔피언 북한, 그리고 호주가 출전한다. 북한은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네덜란드와 더불어 F조로 편성됐다.

이번 대회에선 디펜딩 챔피언인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스페인에 지난해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 파리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아 4위에 오르는 등 성인 레벨에서도 여자 축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8. 16. (금) - 9. 15. (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